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4월 24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044-203-5620), 권영희 서기관(5621)
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(044-203-5260), 김재은 서기관(4282)

철강업계 산업-통상 연계방안 논의

- 제5차 경제통상연구 모임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산업-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발족한 "경제통상연구" 제5차 모임이 열렸다.

* **일시/장소** : '15. 4. 24.(금) 07:30-09:00 / 서울 기술센터 용궁
* **참석자**: 산업부 통상차관보·통상정책총괄과장·철강화학과장·통상법무과장, 포스코경영연구원·현대제철·기보스틸·동부제철·현대하이스코 임원, 철강협회, 산업연구원장·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등
* **발제**: 급변기의 세계 철강 산업과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(포스코경영연구원)

□ 이 자리에서 업계와 정부는 공급과잉의 지속, 보호무역주의 심화,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요인으로 인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□ 이에 따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하여 피소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, 정부, 재외 공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특히 피소 움직임 관찰되면 주요 수출업체, 철강협회, 산업부(철강화학과) 등으로 구성된 "민관 철강통상 대응반"을 수시로 가동하여 위험 품목에 대한 피소 가능성, 업계 정보 공유,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.

○ 또한 철강 분야 양자 통상협의채널을 통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상호 사전 예고하고,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.

* 현재 중국, 일본 등 2개 국가와 철강 분야 양자채널 운영 중

□ 아프리카,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과의 연계 등 통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.

□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(열연박판, 후판, 선재 등)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,

< 중국정부에 대한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폐지 요청 배경 >

▶ 중국 정부의 보통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('10.7)에 따라 중국 업계는 일반강을 보론합금강으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 증치세 환급(9~13%) 지속
* 보론합금강 : 보통강(일반강) 제품에 붕소(보론) 0.0008%만을 첨가

▶ 보론강 증치세 환급은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중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 강화, 저가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 야기
*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비중이 '10년 16.6% → '14년 24.2%로 7.6%p 급증

○ 열연강판(광폭), 냉연강판,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,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(WTO)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하겠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권영희 서기관(☎ 044-203-56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참고1 > 제5차 경제통상연구모임 개요

□ **일시/장소** : 4.24(금) 07:30-09:00 / 기술센터 용궁

□ **주제** : 급변기의 세계 철강 산업과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

○ 발표자: 포스코경영연구원 신현곤 상무

□ **참석대상**

○ **(고정패널)** 통상차관보(주재), 통상정책총괄과장, 통상법무과장, 산업연구원장, KIEP(서진교 실장)

○ **(업종 패널)** 산업부(김종철 철강화학과장), 산업연구원(정은미 연구위원), 포스리(신현곤 상무), 현대제철(김상규 전무), 기보스틸(전병억 상무), 동부제철(김광현 상무), 현대하이스코(이명구 이사), 대한제강(오치훈 대표이사), 철강협회(이병우 전무)

□ **진행 순서**

시 간	내 용	비 고
07:30~07:35 (5′)	○ 인사 말씀	통상차관보
07:35~07:40 (5′)	○ 모두 발언(1)	산업연구원장
07:40~07:45 (5′)	○ 모두 발언(2)	철강화학과장
07:45~08:10 (25′)	○ 발표: 급변기의 세계 철강산업과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	포스코경영연구원 신현곤 상무
08:10~08:55 (45′)	○ 토론	참석자
08:55~09:00 (5′)	○ 마무리말씀	통상차관보

< 참고2 > 최근 철강산업 동향 및 정부 대응노력

□ 철강산업은 자동차, 조선,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초소재 산업이나,

○ 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·조선 분야 불황으로 철강재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고,

○ 신흥국의 신증설, 특히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

< 우리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추이 >

구 분	09	10	11	12	13	14	합계
선진국	0	0	1	4	7	8	20
신흥국	4	4	6	10	5	9	38
합 계	4	4	7	14	12	17	58

□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, 철강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생산, 내수,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

* 철강 생산(백만톤) : ('12) 72.1 → ('13) 69.0 → ('14) 74.1
* 철강 내수(백만톤) : ('12) 54.1 → ('13) 51.8 → ('14) 55.5
* 철강 수출(백만톤) : ('12) 30.5 → ('13) 29.2 → ('14) 32.3

□ 정부도 '14년에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WTO 제소('14.12),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('14.7)를 실시했으며,

○ 금년 들어서는 미국의 우리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미소 마진 예비판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('15.3)

○ 또한 한-중 FTA를 계기로, 중국정부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일부 폐지를 이끌어냄